

2026 몽골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가. 정부 현황	07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7
3. 주요 이슈 Pick	10
가. 중·몽·러 경제회랑 심화 및 다분야 인프라, 에너지 협력 확대(제7차)	10
나. 석탄 가격 급락에 따른 재정 조정 및 산업 영향	11
다. 몽골 총리 해임 및 신임 총리 선출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	12
라. 한-몽 EPA 협상 5차 준비 및 양국 교류 확대	13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5
가. 시장 특징	15
나. 무역	16
다. 산업	20
라. 투자	21
2. 유망 산업	24
가. 프랜차이즈	24
나. 제약 산업	25
다. 금융 산업	27
3. 협력 기회	28
가. 통상·G2G	28
나. 프로젝트	29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31
2. 진출전략	33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9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40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41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7
3. 주요 이슈 Pick	10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 '26년 몽골 경제성장률은 5%대 중반으로 둔화될 전망, '25년보다 하락 예상
 - '25년 몽골 경제는 오유틀고이(Oyutolgoi) 광산의 구리 생산 확대, 농업 회복, 서비스업 성장 등에 힘입어 6%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26년에는 대외 수요 둔화와 수입 증가 요인으로 성장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광업 부문은 구리 생산의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석탄 가격 하락과 중국의 수요 둔화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
 - 서비스업은 운송 물류, 도소매,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수입 증가와 투자 관련 비용 상승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농업 부문은 2년 연속 흉한 피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ADB(아시아개발은행, '25년 4월)는 2026년 몽골 경제성장률을 5.9%, IMF(국제통화기금, '25년 6월)는 5.9%대, WB(세계은행, '25년 5월)는 '25~'26년 평균 6.4%로 '26년에도 6% 내외 수준 유지로 각각 전망

□ 경제성장 영향 요인 분석

- (호재 요인)
 - 광업 부문의 구리 생산 확대 및 신규 우라늄 프로젝트 착수
 - 오유틀고이(Oyutolgoi) 광산 본격 가동으로 구리 정광 생산량 증가
 - 국제시장 내 구리 가격 안정세가 수출 확대를 뒷받침
 - 농업 부문의 점진적 회복
 - 가축 수 회복 및 기상여건 개선으로 농업 생산 플러스 전환
 - 서비스업 성장세 지속
 - 운송 물류, 도소매, 금융 서비스 확대가 내수 기반 성장에 기여
 - '26년에도 광업, 농업, 서비스업 삼각 축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 (부진 요인)

- 석탄 가격 및 대외 수요 둔화
- 석탄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가 수출 및 재정수입에 부담
- 수입 확대에 따른 성장 기여도 감소
- 인프라 및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순수출 효과 축소
- 인플레이션 및 가계부담 심화
- 전기·교통 요금 인상과 육류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 지속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3.29	3.35	3.42	3.45	3.50	3.57	3.60	3.63
명목 GDP	십억 달러	14.2	13.3	15.3	17.1	20.3	23.5	25.0	25.1
1인당 명목 GDP	달러	4,450	4,128	4,657	5,126	5,875	6,181	6,541	6,898
실질 성장률	%	5.5	-4.4	1.6	5.0	7.2	5.0	2.4	4.7
실업률	%	10.0	7.0	8.1	6.7	5.4	5.2	5.1	5.2
소비자물가 상승률	%	5.2	2.3	13.4	13.2	12.2	7.0	7.8	7.2
재정수지(GDP 대비)	%	-2.0	-11.9	-6.7	-1.9	1.1	-2.0	2.0	1.0
총 수출	백만 달러	7,619.6	7,576.3	9,241.1	12,538.6	15,186.9	18,194.6	18,839.8	18,855
(對韓 수출)	백만 달러	27.8	21.4	32.9	277.4	194	156.4	90.1	85.1
총 수입	백만 달러	6,127.5	5,298.9	6,845.5	8,704.4	9,250.2	11,625	12,614	13,51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267.0	235.7	294.2	424.6	476.1	582.2	610.1	635.2
무역수지	백만 달러	1,492.1	2,277.4	2,395.7	3,834.2	5,936.6	6,707	6,225	5,345
경상수지	백만 달러	-2,160	-675	-2,110	-2,300	-121.2	-593.6	-521.8	-566.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660	2,750	2,849	3,141	3,466	3,380	3,528	3,49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27	0.26	1.13	0.76	0.9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4.43	17.19	21.39	28.5	30.6	33.4	35.0	37.1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WB, ADB, IMF, KITA, 몽골 통계청, 몽골 관세청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6% 내외 성장(구리 증산·서비스 회복) 이후, '26년은 대외수요 둔화와 자본재 수입 확대,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5%대 중반의 완만 둔화가 예상
 - 광업의 구리(+), 석탄(-) 효과가 상쇄되며 성장 기여의 차별화가 지속
- (소비) '25년 몽골의 소비 여력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작용할 전망
 - 2025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66만 투그릭(183.6달러)에서 20% 인상된 79만 투그릭(220.3 달러)으로 조정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기·교통요금 인상, 육류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 소비 여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큼
- (산업생산) '25년 7월 기준 몽골 총 산업생산액은 약 3조 7,200억 투그릭(10억 3,000만 달러)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광업·채굴업 부문이 2조 9,800억 투그릭(8억 2,000만 달러)을 차지해 전체 산업 생산의 약 80%에 해당
 - '23년 이후 감소했던 광업 생산은 '25년에 반등했으며, 구리 생산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석탄은 가격 약세로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 (대외교역) '24년 몽골 교역 규모는 298억 1,9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1%, 총수출은 181억 9,4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1%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은 116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7% 증가
 - 몽골은 내륙국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전력·석유·소비재 및 생필품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은 4위 수입 대상국으로 '24년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5억 8,2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 (투자유입) '24년 기준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은 334억 8,19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142억 2,667만 달러), 중국(54억 4,334만 달러), 싱가포르(29억 5,559만 달러), 영국(23억 5,122만 달러), 홍콩(14억 4,104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 3,06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구조를 보임.
 - 특히 네덜란드의 투자 비중이 전체의 42.5%를 차지하며 가장 높고, 광업 및 관련 산업 중심으로 집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투자 진출) 몽골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는 통계적으로 집계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며,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황임. 다만 일부 서비스업 및 인접국(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정치(정책) 환경

- 총리 해임 및 새 내각 출범, 정치 지형 변화
- 정부 활동계획 및 임금·연금 등 기업 영향 큰 정책
- 교통·자동차·환경 등 규제 장벽

가. 정부 현황

□ 새 총리 출범과 정치 지형 변화

- '25년 6월 3일, 어용에르덴(Oyun-Erdene) 총리가 국회 신임투표 부결로 해임 → 6월 13일 잔당 샤타르(Zandanshatar) 신임 총리 선출
 - '2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68석)을 확보한 인민당이 집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신임 총리 역시 인민당 출신으로 정책 기조의 연속성이 이어질 전망
 - 내각은 총 19명 장관, 16개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정부 활동계획('24~'28년)은 변경 없이 유지
 - 새 정부는 '5D 전략'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삼아 GDP, 수출, 재생에너지, 경제 자립, 디지털화를 10년 내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 청년층 시위와 SNS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향후 정책 결정에 사회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몽골 정부 '24~'28년 활동계획」 확정 및 시행

- 몽골 정부는 장기 국가발전전략 'Vision 2050', 중기 '신부흥', '21~'25년 5개년 국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2024-2028년 정부 활동계획」을 승인하고 본격 시행에 착수
 - 본 계획은 △ 지역 균형 발전 △ 인적자원 개발 △ 경제성장 촉진 △ 인권 존중 거버넌스 등 4대 정책 축 아래 총 16개 분야, 620개 세부 목표를 포함
 - 특히 에너지 개혁(30년간 미뤄진 전력·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착수),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산업화 및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 기반의 대형 인프라 등 경제 확대를 목표로 한 14개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
 - 이 가운데 14개 메가 프로젝트는 국경 간 운송·에너지 인프라, 수력·석탄·재생발전소, 위성통신, 수자원 공급, 광물 가공·도시 인프라 등 국가 기반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조달과 민간협력(PPP) 방식이 병행될 예정

- 우리 기업의 경우 EPC·O&M 및 기자재·부품 공급, ICT·위성통신·디지털 서비스, 수처리·환경관리·스마트시티 기술, 금융조달·PPP 구조 설계, 현지 인력훈련·A/S 패키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며, 현지 파트너십 및 기술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교통 제도 개편 및 자동차 정책 변화

- 울란바토르 대중교통은 수십 년간 만성적자 구조였으나, 교통 혼잡 및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5년 1월부터 버스요금을 1,000투그릭(0.27달러)으로 인상하고 무임, 감면 제도를 교통카드 기반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
 - 정책 시행과 함께 자동요금징수(AFC), 비접촉 결제, 정산시스템에 대한 규격 및 보안 요건이 강화되며, 향후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
- 몽골은 도로교통법상 좌측 핸들 차량(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나, 일본 중고차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 우측 핸들 차량이 전체 등록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 왔음. 이에 따라 '27년 1월부터 신규 수입 차량은 좌측 핸들만 허용되고, 기존 우측 핸들 차량은 운행은 가능하나 신규 등록 및 대량 수입은 제한될 예정
 - 제도 시행에 따라 좌측 핸들 신차·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우측 핸들 차량 개조·정비 서비스 및 교체 프로그램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24~'26년 단계적으로 자동차세를 기존 대비 2~3배, 도로 사용료를 5배 인상할 계획이며, 배기량·차량 종류·용도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 예정
 - 이로 인해 고배기량·디젤 차량의 운행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전기·CNG·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친환경 차량 및 충전·정비 인프라 수요가 확대될 전망
- 또한 차량 및 부품 조달 시 단순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A/S 서비스, 예비 부품 공급, 현지 인력 훈련을 포함한 현지화 요건이 의무화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은 현지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 정비센터·부품 창고 구축, 운전·정비 인력 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 패키지형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금·연금의 물가 연동 및 인상 제도화

- 연금·수당·공무원 임금의 연례 물가연동 상시화(매년 1월, 정부 고시)
 - '25년 1월 1일부터 연금, 군인연금 및 각종 사회수당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6% 일괄 인상하기로 함. 이 조치로 완전연금과 군인연금 최저액은 9,000투그릭, 비례연금 최저액은 57만 2,400투그릭으로 조정되었으며, 인상 재원으로 약 297억 4,200투그릭이 소요될 예정
 - '25년 4월 1일부터 국가 최저임금은 66만 투그릭에서 79만 2,000투그릭(+20%)으로 인상, 특히 광업·건설·운송 등 일부 업종은 업종 특성에 따라 부문별 최저임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이 부여되어, 특정 산업의 노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25년 예산 집행분부터 공공부문 임금이 6% 인상되고, 지역 및 직군별로 최저급여 하한이 상향, 이에 따라 행정·전문직 최저급여는 116만 6,000투그릭, 공통서비스직은 95만 4,000투그릭 이상으로 조정되며, 지방·수도 외곽 지역 근무자는 별도의 지역가산 제도가 적용되어 급여 수준이 추가로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제도 변화는 몽골 내 인건비 전반의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노무비 반영 비율 확대, 장기계약 시 가격조정 조항 반영, 인력 확보 전략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건설·광산·운송 등 노동집약적 프로젝트에서는 최저임금 및 지역가산 규정을 계약·원가 산정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함.

□ (ESG) 몽골, 글로벌 환경 리더십 강화 : COP17 개최 및 10억 그루 나무 캠페인 지속 추진

- '26년에는 몽골에서 제17차 UN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임. 이는 UNCCD 197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최대 환경 회의로, 사막화, 토지 황폐화, 가뭄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전망
- 몽골은 아시아 최초로 EU Forest Partnership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산림 복원, 생태계 보호 관련 국제 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대응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10억 나무 심기' 캠페인을 '30년까지 추진 중이며, '21년 시작 이후 누적 성과가 확대되고 있음.
- 캠페인 목표 달성을 위해 몽골 21개 대형 광산업들이 총 6억여 그루 식재를 약속했으며 예산·인력·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음.

3. 주요 이슈 Pick

가. 중·몽·러 경제회랑 심화 및 다분야 인프라, 에너지 협력 확대(제7차)

□ 개요

- '25년 9월 2일 베이징에서 제7차 중·몽·러 정상회의 개최. 3국은 기존 중기 로드맵의 연속 이행을 확인하고 경제회랑을 '31년까지 5년 연장, 인프라·통관·환경·인문 교류를 폭넓게 강화하기로 함
 - 철도, 도로, 통관 현대화, 에너지 연결(가스관, 전력망), 환경, 수자원 공동관리, 디지털, 금융 연계(현지통화 결제 시스템 등)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
 - 에너지 협력에서는 몽골 경유 가스관 추진 의지를 재확인, 정치적 합의에서 상업 협상 단계로 이동하는 흐름이 명확해짐
- (관련 분야·산업)
 -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철도, 도로, 국경 통관 현대화 수요 증가 예상
 - 에너지(가스관, 전력망) 연결, 환경, 수자원 관리, 디지털 통관 및 금융 결제 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신규 기회 창출
 - 해당 분야는 장기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통합이 필요한 영역으로 해외 기술, 장비, 서비스 기업 진출 유망
- 인프라·디지털 통관·환경장비 등 진출 확대 가능성
 -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의 시스템, 장비 공급, 디지털 통관 솔루션, 환경, 안전관리 장비 수요 확대
 - 운영, 유지보수형 서비스,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참여 가능성 제고
- 프로젝트 상업 조건 불확실성 및 계약 리스크 관리 필요
 -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의 상업 조건(가격, 자원, 통과조건 등) 불확정
 - 단계적 접근, 계약 시 제재, 불가항력, 분쟁 해결 조항 명확화,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 3국 간 정치·외교 관계나 제재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일정·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외교 리스크 및 제도적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나. 석탄 가격 급락에 따른 재정 조정 및 산업 영향

□ 개요

- 몽골 정부는 '25년 6월 25일 '2025년 예산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 예산법 제34조(예상 불가 요인에 따라 세입 급감 등) 요건 충족으로 보정예산 편성 필요 발생
 - 핵심 배경은 석탄 가격 급락, 정부가 당초 가정한 105USD/톤과 달리 '25년 1~5월 평균 가격은 71.9~72USD/톤(전년 동기 대비-39%) 수준에 도달
- 석탄 가격 하락은 곧바로 수출, 세입 둔화로 연결
 - '25년 1~5월 총 수출 : 54억 2,000만 USD(전년 동기 대비 -15%(-9억 3,300만 USD))
 - 총 세입 : 31.7억 USD(-11%, -3.6억 USD)
 - GDP 성장률(몽골 중앙은행) '23년 7.4% → '24년 4.9% → '25년 1분기 2.4%
- 정부는 세입 -10.6%, 지출 -5.4%로 조정
 - 세입 감소 요인 중에서는 광물 로열티 수입이 약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법인세 감소가 약 34%, 국내 부가가치세 감소가 약 14%를 차지
 - 일부 공공투자 사업 지연·취소, 공무원 인력 축소(의사·교사 제외 1만 4,000명)
- 전문가 및 재정안정성위원회(FSC)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예상 불가 요인'이 아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치(105USD/톤)를 적용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
- 필수 인프라 유지·산업 다변화 정책 활용 가능성
 -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공공투자 사업은 축소되나, 필수 인프라(에너지·물류·보건·교육) 분야는 유지·보강 가능성이 있어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존재
 - 몽골 정부, 재정 다변화 위해 비광물 산업(재생에너지·농축산·디지털 등) 육성 추진 → 관련 진출 기회 확대
 - 대외 차입·국제금융기구(IMF·ADB) 지원 확대 → 한국 기업 국제입찰 참여 기회 증가
- 재정 긴축·세제 변동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확대
 - 광물 의존 재정으로 경기 변동 시 예산 삭감·사업 취소 위험 → 계약 안정성 저하
 - 비핵심 공공인력 감축으로 행정 지연 및 정책 집행력 약화 우려
 - 외화수입 감소로 환율 변동성 확대 → 투자·거래 시 환리스크 관리 필요
 - 세수 부족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인상 등 조세정책 변화 가능성

다. 몽골 총리 해임 및 신임 총리 선출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

□ 개요

- 몽골 총리 어용에르덴(Oyun-Erdene)은 약 4년 5개월 재임('21년 1월 27일~'25년 6월 3일) 후, '25년 6월 3일 국회 신임투표 부결로 해임
 - 해임 배경은 총리 아들과 관련된 사생활 논란 및 청년층 중심의 대규모 시위(약 20일간 지속)가 직접적 원인
 - '25년 6월 13일, 몽골 대통령 후렐수흐(Khurelsukh)는 국회의장 출신의 잔당샤타르(Zandan-shatar)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 국회 표결에서 92.3% 찬성으로 공식 선출
 - 새 총리는 여당 내 통합, 민심 수습, 반부패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사태는 시민 행동으로 권력 교체가 이뤄진 몽골 정치사적 사건으로 기록
- (관련 분야·산업)
 - 정치·행정 : 여당 내 권력 재정비, 반부패 정책 강화, 정부 기능 정상화
 - 사회·문화 : 청년층의 정치 영향력 확대, SNS 여론이 정책 변수로 작용
 - 경제·개발 정책 : 비전 2050, 디지털몽골, e-Mongolia 프로젝트, 대규모 인프라(철도·에너지) 사업 등이 재검토·축소 위험
 - 대외관계 : 정부 교체 후 대외정책 기조는 유지 가능성이 크지만, 내부 개혁에 정책 에너지가 집중될 전망
- 디지털 정부·청년정책·공공조달 개혁 관련 협력 확대
 - 디지털 정부·투명성 강화 흐름 → IT 솔루션,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보안·인증 분야 협력 수요 증가
 - 청년층 수요 반영 정책 확대 → 교육, 스타트업, 친환경·공정 소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 기회
 - 반부패 개혁 기조 → 공공조달 시스템의 투명화·경쟁 확대, 외국 기업 참여 장벽 완화 기대
- 인프라 사업 지연·정책 변동성 대응 필요
 -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연·중단 위험 → 철도·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일정 지연 및 계약 불확실성 고려 필요
 - 정책 기조 변화 → 기존 비전 2050 중심의 장기 프로젝트에 과도한 의존은 위험, 대신 단기·중기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접근 필요
 - 사회적 여론 변수 → 청년층·SNS 세대 요구(투명성·환경보호 등)에 맞춘 CSR 활동 및 ESG 기반 전략 필요

라. 한-몽 EPA 협상 5차 준비 및 양국 교류 확대

□ 개요

- '25년 8월 24일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전문협회·협동조합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협상 준비 본격화
 - '23년 1차(서울), '24년 2~3차(울란바토르), '24년 4차(서울)에 이어 진행된 협상으로,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투자, 디지털무역, 공공조달, 지재권, 분쟁해결 등 16개 분야를 포괄
 - '25년 8월 22일 몽골 외교장관과 한국 외교부 1차관 회담에서도 EPA 협상 가속화 및 신산업 협력 확대가 논의되며 양국 협력 심화 의지 확인
- (관련 분야·산업)
 - 한국은 몽골의 4위 교역국(수출·수입 모두)으로, EPA 타결 시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교역 규모 확대 전망
 - 디지털무역, 서비스, 투자·개발 협력 분야가 신성장 영역으로 부각
 - 농축산물·광물 등 몽골산 원자재 수출과 한국산 기계·자동차·소비재 수입의 상호 확대
- 교역·투자 확대 및 신산업 협력 기회 증대
 - EPA 체결로 관세 인하·시장 접근성 확대, 물류·디지털 서비스·소비재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
 - 몽골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디지털화·녹색성장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 제고
- 협상 불확실성 및 제도 이행 리스크 관리 필요
 -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농축산물, 일부 제조업)의 개방 범위·조건 불확실
 - EPA 발효까지 법적·제도적 이행 기간 필요, 중소기업은 통관·인증 제도 대응 준비 필요
 - 협상 지연 또는 정치적 변수 발생 가능성 상존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5
2. 유망 산업	24
3. 협력 기회	2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몽골은 내륙국가로서 러시아, 중국 등 이웃국가 의존도가 높고 대외변수에 민감한 시장
-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젊은 층으로, 해외브랜드와 최신 트렌드 소비의 핵심 시장

가. 시장 특징

□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 인접, 대외변수에 민감한 경제구조

- 몽골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및 광물수요 변동은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
 - 중국은 몽골 전체 수출의 91%, 광물 수출의 99%를 차지하는 절대적 교역 대상국으로, 몽골은 중국의 광물수요 변동에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고 있음.
 - '25년 들어 중국의 광물수요 감소로 인해 몽골 수출이 4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25년 6월 기준 전년동기비 16.5% 감소한 상황
- 에너지·석유제품 품목에 있어서 러시아에 의존
 - '24년 기준 러시아는 몽골의 제5위 수출국이자 제2위 수입국으로, 정유시설이 없는 몽골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93%를 러시아에서 수입
 - * 러시아는 몽골 수입 전체의 34%를 차지

□ 젊은 세대의 트렌드 지향적 소비 성향 압도

- 해외 경험이 있는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브랜드·프리미엄 제품 소비 상황
 -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젊은 층과 인구 및 울란바토르시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집중되어 있고, 한국·일본·미국·유럽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 몽골 가계 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 대비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함.
 - 수도와 지방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구매력 차이가 크며, 수도의 일부 소비층은 고가 해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저가 실용형 제품 수요 중심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5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24년에 최고치 기록한 대외무역은 '25년 들어 지속 감소세

- (수출 규모) 광물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수출 규모 축소
 - 몽골은 광물자원 중심의 수출구조로, 중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원자재 수요 변동으로 수출 실적이 대폭 감소
 - '24년에는 157억 8,338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수출 규모가 '25년 들어 지속 축소하여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16.6% 감소
 - * '25년 1~5월 수출 규모 추이 : 19.5% ↓ (1월) → 8.1% ↓ (2월) → 17.5% ↓ (3월) → 14.1% ↓ (4월) → 15.1% ↓ (5월)
- (수입 규모) '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몽골 수출 규모가 지속 축소하는 반면 수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율이 차차 낮아지고 있는데, 내수경기 둔화 및 달러 환율 상승이 주 원인으로 파악
 - '24년에는 116억 1,4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5.5% 증가했으며, '25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은 2.8% 수준
 - * ↑ 3.8%('25년 4월) → ↑ 3.2%('25년 5월) → ↑ 2.8%('25년 6월)

몽골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15,186.9	21.1	15,738.4	3.9	6,581.4	-16.6
역외수입	9,250.2	6.3	11,614.6	25.5	5,528.2	2.8
무역수지	5,936.6	54.7	4,168.7	-29.9	1,053.2	-58.1
총 교역	24,437.1	15.0	27,398	12.1	12,109.6	-8.7

자료: 몽골 통계청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중국은 몽골의 최대 무역 대상 국가로, 수출의 91.6%를 차지
 - 몽골의 수출국 순위는 중국 다음으로 스위스(5.2%), 미국(1.1%), 러시아(0.4%) 순이며, 한국은 0.23%의 비중으로 6순위 수출 대상국
 - '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수출액은 60억 3,013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7.5% 감소했으며,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45.3% 감소한 반면 구리정관 수출액은 23억 5,2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61.7%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수출 품목) 석탄, 구리, 금 등 광물 수출 비중은 약 88%
 - '24년에는 광물 수출액은 137억 6,984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5년 상반기 기준 58억 1,361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17.1% 감소
 - '25년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액 중 석탄(38%), 구리정광(35%), 금(6%), 진주 및 귀금석(6%), 철광석(4%) 수출이 대다수를 차지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몽골의 최대 수입국은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러시아로, 이들 비중은 약 62% 수준
 - '25년 상반기 수입 대상국 기준 역시 중국(38.1%)이 1위이며, 그 다음 러시아(23.6%), 일본(12.7%), 한국은 2억 3,940만 달러로 4.3%의 비중을 차지해 4위 수입 대상국
 - 상위 5개 수입국 중 중국과 러시아 수입액이 3.4%, 4.2% 각각 감소한 반면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7억 달러를 기록해 36.5%, 한국은 8%, 미국은 18.4% 각각 확장
- (수입 품목) 몽골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제품(18%), 승용차(12%), 화물차(5%), 철강제품(3%) 등으로 확인
 - 전체 수입 규모가 증가한 데에는 광물성 제품, 목재 제품, 차량과 그의 부품, 일반기계 등 품목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침

□ 對韓 교역 동향

- 한국과 몽골의 교역 규모는 '24년 6억 달러 초과, 사상 최고치 기록
 - (수출) 한국의 몽골 수출은 코로나19 이후인 '21년부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4년에는 5억 8,183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2.1% 확장
 - '25년 상반기 기준 3억 9,085만 달러를 기록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몽골 수출규모도 최고 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 몽골 수입 규모는 2,000~3,000만 달러를 유지하나 '23년에는 6,00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4년에는 3,537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3.7% 감소
 - '25년 상반기 기준 896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비 45.9% 감소하여 금년 전체 수입 실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무역수지) 한국은 몽골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데, 몽골에서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흑자가 지속 증가세
 - * 4억 1,364만 달러('23년), 5억 4,646만 달러('24년), 3억 8,189만 달러('25년 6월)

•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출 품목은 식품, 자동차, 화장품, 기계류, 의약품 등 소비재와 차량·기계류 품목 중심으로 수출
- '24년 기준 기호식품 수출 비중(16.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동차(15.1%), 화장품(8.1%), 농산가공품(5.4%), 건설광산기계(5.4%) 등의 순위로 확인
- '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는 항공기 및 부품 수출이 전년동기비 급증하여 1위 품목으로 나타났는데, 몽골이 항공기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

한국의 대몽골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581.8	22.1		총 수출	391	37.3
1	기호식품	93.8	27.3	1	항공기 및 부품	96.5	8,288.9
2	자동차	88.2	18.4	2	자동차	42.6	-5.3
3	비누치약 및 화장품	47.4	17.3	3	기호식품	40.8	10.6
4	농산가공품	31.6	29.9	4	비누치약 및 화장품	26.7	31.2
5	건설광산기계	31.4	50.4	5	건설광산기계	19.1	3.0
6	농약 및 의약품	21.6	25.1	6	농산가공품	16.1	0.8
7	패션잡화	19.8	82.2	7	농약 및 의약품	12.4	51.1
8	석유제품	19.5	16.4	8	패션잡화	10.6	9.0
9	자동차부품	10.4	20.5	9	도료 및 잉크	7.2	16.3
10	식물성 재료	10.3	18.3	10	석유제품	7.1	-33.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 한국의 대몽골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 농산물, 의류, 인쇄물 등
- '24년 기준 금속광물 수입 비중(50.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류(28.6%), 농산물(4.5%), 축산부산물(3.1%), 인쇄물(2.8%) 등 순위며, 상위 3개 품목 비중은 약 83% 수준
- '25년 상반기에는 한국의 수입 규모가 45.9%로 축소됐는데, 광물과 인쇄물 수입이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

한국의 對몽골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35.3	-43.7		총 수입	8.9	-45.9
1	기타금속광물	17.8	-37.8	1	기타금속광물	5.0	-59.0
2	의류	10.1	8.7	2	축산가공품	0.8	87.3
3	기타 농산물	1.6	-44.2	3	기타농산물	0.8	-19.9
4	축산부산물	1.1	-42.4	4	의류	0.6	-19.9
5	기타인쇄물	1.0	132.7	5	축산부산물	0.4	-31.0
6	축산가공품	0.9	67.4	6	석유제품	0.3	41.6
7	석유제품	0.9	116.9	7	동광	0.2	0
8	기호식품	0.4	60.0	8	농산가공품	0.2	2.7
9	농산가공품	0.3	0.9	9	기타인쇄물	0.1	-77.9
10	천연섬유사	0.2	-55.1	10	기호식품	0.1	28.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경쟁국 동향

-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교역 확대 희망
 -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 일변도의 의존적 국제관계에서 탈피, 소위 '제3의 이웃'으로 일본, 미국, 한국 등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
 - '16년 일본과의 EPA 체결 이후 몽골의 대일본 수입 규모가 급증했으며, 현재 한국과 EPA 체결을 위한 4차 협의까지 진행한 상황으로, 체결 시 양국 교역이 확대 전망

몽골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중국	34.9	40.5	40.0	38.1
러시아	30.0	25.8	24.3	23.6
일본	7.7	7.7	10.1	12.7
미국	3.05	3.03	4.6	4.1
한국	4.9	4.5	4.1	4.3

자료: 몽골 관세청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몽골 주요 산업 부문은 광업·도소매업·농업·제조업
 - '00년까지 몽골의 GDP 중 농목축업 비중이 27% 수준이었으나, 이후 과도한 광업 의존형 경제 구조로 변화
 - 광업은 2000년대 GDP 중 비중이 10% 수준에서 '10년 21%, '20년 24%, '24년 27%의 비중 차지
- 과도한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제조업 육성으로 산업 대변화 정책 추진
 -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광물채굴업 70.9%, 제조업 21.8%, 전기·난방·환풍산업 6.4%, 상·하수도·폐기물처리업 0.8% 비중을 차지
 - 이 같은 광업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 다변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국가장기개발정책 2050' 및 산업정책상 산업과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자국보유 원자재 농축산물 및 광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과제로 제시

최근 몽골 주요 산업 생산 및 매출 추이

부문	산업생산(비중, %)			매출(10억 투그릭)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광업채굴업	67.9	70.4	70.9	22,633.1	36,706.0	39,444.7
제조업	24.1	22.7	21.8	6,526.4	8,520.3	8,655.0
전기·난방·환풍산업	7.0	6.1	6.4	1,477.9	1,878.9	2,064.4
상·하수도·폐기물처리업	0.9	0.7	0.9	199.3	235.7	285.0

자료: 몽골 통계청

□ 광산업 동향

-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으로 자원 수출과 광산 분야 외국인투자 기반으로 국가 발전 도모
 - 몽골 광물자원 산업은 GDP의 27%, 산업생산의 70.9%, 전체 수출의 87.2%를 차지('24년 기준) 할 만큼 광업 의존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전체 광물 수출에서 석탄·구리정광·철광석·원유·몰리브덴 정광·아연·형석 등 광물이 97.1%를 차지
 - * 구리(세계 2위), 석탄(4위), 형석(3위) 등 총 80여 종의 광물이 탐사되고 있으며, 희토류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6%로 추정

□ 전력 산업 동향

- 몽골은 전력 소비의 약 20%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
 - '24년 기준 몽골의 전력 생산량은 약 87억 5,000만 kWh, 소비량은 약 116억 2,000만 kWh로 소비의 부족량은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 수요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
 - 수요의 80% 이상이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집중
- 몽골은 국토가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 관계로 중앙·서부·동부·남부·알타이-올리아스타이 등 5개 지역별 독립 전력 시스템 운영
 - 전력 생산 구조는 여전히 석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전체 발전량의 90%가 석탄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신재생에너지는 8.3%, 수력은 0.8%에 불과
 - 송배전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1960~1980년대에 구축되어 전력 손실률이 10%를 초과하기도 하며, 정전도 잦은 편
- 몽골 전력산업 구조는 국영 기업 중심으로 민간 참여는 제한적
 - 대다수 발전소가 정부 소유로, 경쟁 부족과 운영 비효율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24년부터 전기 및 난방요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시행 중
 - '25년 1월, 몽골 정부는 프랑스 오라노 마이닝(Orano Mining)과 총 16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즈오브치 오보(Zuuvch Ovoo) 우라늄 광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28년간 논의 끝에 공식화된 것으로 몽골이 청정에너지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4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3% 증가
 - '20년부터 몽골 FDI 유치 실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누적액 기준으로 '24년에는 33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 이 또한 5년 연속 증가세
 - * FDI 유치 실적 : 24억 2,000만 달러('20년) → 26억 2,000만 달러('21년) → 28억 5,000만 달러('22년) → 30억 7,000만 달러('23년)

□ 세계적인 자원 부국인 만큼 외국인직접투자의 75% 이상이 광업에 집중

- 광업 다음으로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 순위
 - 몽골 경제는 구조적으로 광업 의존도가 높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 생산, 수출 실적 등 모두 광업 비중이 높은 편

- '24년 투자유치 334억 8,000만 달러(누적액 기준) 중 광업은 252억 1,000만 달러로 75%의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도소매업(5.6%), 금융·보험업(4.7%), 서비스업(3.2%), 건설업(2.5%) 등 상위 5개 부문이 91%의 비중 차지

□ 네덜란드·영국·싱가포르 3개국의 對몽골 FDI가 전체 FDI 중 78% 수준

- 몽골 Oyutolgoi 광산의 투자국인 영국·싱가포르에서의 투자액은 지하 광산 확장 사업에 따라 지속 증가세
 - 오유틀고이(Oyutolgoi)는 몽골 구리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기여도가 높은 광산으로, Rio Tinto사가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어 동사가 위치하는 영국·싱가포르에서의 투자가 높은 편
- '24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은 334억 8,000만 달러이며, 이 중 1위 국가는 네덜란드로 전체 FDI 중 42.5%에 해당하는 142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황
- 반면 '24년 FDI 유입액 41억 8,000만 달러 중 네덜란드는 14억 4,000만 달러로 34.7%, 다음으로 영국은 22.5%, 싱가포르는 21.4%, 중국은 5.6%, 미국은 3.8%의 비중 차지

□ 한국의 몽골 투자 현황

- 한국의 몽골 투자 규모는 6억 3,000만 달러에 도달
 - 한국은 '94년부터 몽골에 투자하기 시작해 '25년 3월까지 투자 누적액은 6억 3,829만 달러로 확인되며, '23년에는 8,135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326% 증가했고 역사상 최고치 기록
 - 투자기간 내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776건으로, 이 중 '08년에 79건으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25년은 3월 기준 4건으로 확인되어 금년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對몽골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개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19	216.7	81	326.3	29	-64.2	2	n/a
신규 법인 설립 건수	14	-17.6	27	92.8	37	37.0	4	n/a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동구바이오제약과 문킨툰(Munkhiin Tun)사, 제약시장 공략을 위한 공동 제조공장 설립

- (기업정보) 울란바토르무역관 지사화 업체인 동구바이오제약이 몽골에 자체 앰플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몽골국립의과대학(MNUMS)과 전략적 MOU를 체결해 현지 의료 및 제약 협력을 강화
- (성공 사례) 몽골 최초의 외국계 의약품 제조시설 완공
 - 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유력 의약품 제조사와 합작투자(JV)로 설립했으며, 몽골 기업은 자본과 부지 제공, 한국 기업은 기술과 인력 제공
 - '24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동구바이오제약이 앰플 공장을 완공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췄으며, 초기에는 내수 공급에 집중하며 단계적으로 한국 GMP 인증과 수출 거점 확대를 추진 중
- (시사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수입의존도 해소로, 장기적으로 아시아 및 유라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전망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프라 부족 및 내륙국 특성으로 높은 운송비 발생
 - 물류, 철도, 도로, 전력망이 제한적이며, 특히 석유제품은 수입(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및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존재
- 3C(China, Coal, Copper) 의존도로 인한 민감한 경제구조가 약점
 - 몽골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91%, 수입은 40%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액에서 석탄 수출은 54%, 구리 수출은 21%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 및 국제 원자재 시세에 극도로 민감
- 부패관행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불확실성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부패지수(CPI)는 '23년까지 지속 하락했으며, '24년에는 전체 180개국 중 114위 기록
 - * '14년 80위, '16년 87위, '18년 93위, '20년 111위, '22년 116위, '23년 121위

2. 유망 산업

가. 프랜차이즈

□ 몽골 프랜차이즈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 중

- 몽골 프랜차이즈 시장은 제도적 기반보다 실제 수요와 기업 간 협력을 중심으로 성장 중
 -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 관리 기관, 통계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제도보다 실질적 소비 수요와 파트너십 기반의 비즈니스 확장이 시장 성장을 견인
 - 몽골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 변화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료품 외 물품 및 서비스 지출 비중이 전체 소비의 69%를 차지
 - 해당 범주에는 외식업, 커피 전문점, 뷰티 서비스, 생활 편의 서비스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 소비 분야가 포함
- 무역 및 요식업 분야는 팬데믹 이후 회복기를 지나 구조적 성장 단계 진입
 - 프랜차이즈가 집중되어 있는 울란바토르시의 요식업 수익은 '25년 상반기 기준 3억 2,074만 달러를 기록해 3년 전동기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
 - * 몽골 전체 요식업 수익에서 울란바토르시 요식업 수입 비중은 약 82%
 - 반면 울란바토르시에서의 도소매업 매출액은 7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21년 6월 대비 70% 증가하는 등 프랜차이즈가 속하는 무역 및 요식업 규모는 확장하는 추세

몽골의 요식업 수익 및 도소매업 매출 동향

(단위: 10억 투그릭,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요식업 수익	3,129	93.3	3,838	22.6	4,497	17.2	1,400	12.7
도소매업 매출액	48,274	38.3	59,974	24.2	68,019	13.4	308.8	-0.6

자료: 몽골 통계청, '25년 9월 16일 기준 확인 가능 최신 자료

□ 단순한 외국 브랜드 진출이 아닌 다양한 업종에서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

-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로 활발히 다각화 중
 - 글로벌 패스트푸드(KFC, PIZZA HUT, BURGER KING), 유통(MINISO, CARREFOUR), 의류(TERRANOVA, CALLIOPE), 부동산(REMAX), 숙박(BEST WESTERN, HOLIDAY INN, NOVOTEL, IBIS, TOYOKO INN, SHANGRI-L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현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빠르게 성장 중

- 한국 프랜차이즈는 마트·편의점·카페·치킨·디저트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
 - '16.6월 한국의 E마트 진출 이후 한국계 프랜차이즈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CU(407개)와 GS25(280개) 편의점이 몽골 전체 프랜차이즈 중 최다 점포 수를 보유하는 등 다른 국가 대비 한국계 프랜차이즈 진출이 몽골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뚜레주르·롯데리아·카페베네·탐앤탐스·커피나무 등 브랜드가 진입했으며, 메가커피·맘스터치·디저트39 등 다양한 브랜드가 새롭게 진출하고 있음

〈최근 몽골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동향('24~'25년 8월 기준)〉

			
DESSERT39	WETZEL'S PRETZELS	MACHIDA SHOTEN	GONG CHA
			
SUBWAY	MEGA COFFEE	BEARD PAPA'S	KRISPYKREME

자료: 각 브랜드 홈페이지

□ 한국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기회요인

- 몽골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로, 글로벌 문화와 트렌드 수용도가 높은 편
 - 젊은 세대가 도시 중심에 밀집되어 소비 패턴·트렌드 형성 주도층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계 브랜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제공
 - 한국은 몽골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유학하며, 취업하는 등 빈번한 교류 경험이 몽골 소비자에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호감 형성
 - 활발한 교류로 몽골 사회 전반에 한국 문화 및 생활양식이 확산되어, 일상에서 접하는 한국 문화가 프랜차이즈 수용성을 높이는 기반 제공
 - 문화적 장벽이 낮아 초기 진입 시 적응 속도와 성공 확률이 높으며, 한국 브랜드는 현지에서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지로 인식

나. 제약 산업

□ 자국 제약사 경쟁력이 저조해 전체 의약품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거대 수입 시장
 - '23년 기준 의약품 수입 규모는 5,282억 투그릭, 의약품 생산 규모는 1,109억 투그릭으로 집계되어 몽골은 전체 의약품 소비의 82.6%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

- '23년 기준 제약사 33개사는 의약품(20개사), 의료용품(7개사), 전통약(6개사), 건강기능식품(12개사), 소독약(3개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입유통사는 454개사로 확인
- 대규모 제약사로는 MONOS, TAVIN US, TSOMBO, NAKHIA, MUNKHIIN US, IVCO 등 존재하나 각 제약사들이 제조하는 약품 종류가 중복되지 않아 국내 경쟁력이 낮은 편
- 전체 등록 의약품 4,248개 중 수입 의약품 수는 3,390개로 약 80%의 비중 차지
 - 전체 등록 의약품 중 인도 의약품 비중은 12%며, 다음으로 한국이 10.6%로 2위를 기록하고 러시아 3위, 독일 4위 순
 - '24년 기준 몽골 수입의약품 시장 규모는 1억 5,73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슬로베니아(15%), 독일(13.8%), 한국(9.7%), 러시아(7.1%), 헝가리(6%) 등 상위 5개국 비중이 약 52%로 확인
 - 몽골 질병 발생빈도를 보면 호흡·소화·심혈 계통의 질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 높은 것으로 집계

'23년 기준 전체 등록 의약품 중 ATC 기준 점유율

종류	등록 개수(개)	비중(%)	종류	등록 개수(개)	비중(%)
A-소화기관	553	13.02	M-근골격계	217	5.1
B-혈액및조혈기관	244	5.7	N-신경계	380	8.95
C-심혈관계	399	9.4	P-구충제, 살충제및기피제	17	0.4
D-피부과	186	4.4	R-호흡기계	353	8.3
G-비뇨생식기계및성호르몬	172	4.1	S-감각기관	129	3.04
H-성호르몬및인술린을 제외한 전신성호르몬제제	87	2.05	T-Traditional Medicine	541	12.7
J-전신작용항암제	693	16.3	V-기타	89	2.1
L-항종양제및면역조절제			전체	4,248	100%

자료: 몽골 보건부

□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유리

- 몽골 의료 분야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해외기업 진출에 좋은 기회
 - 몽골은 의약품 시장뿐 아니라 의료장비 및 의료 인프라 열악으로 해외에서의 수입과 의료관광도 확대 추세
 - 특히 대한국 의료 관광객 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4년 기준 한국에 방문한 전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에서 몽골은 5위를 차지
 - * '20년 6,102명, '21년 9,145명, '22년 1만 4,148명, '23년 2만 2,080명, '24년 2만 5,731명

- 또한 몽골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은 MONOS, ASIA PHARMA, MEIC 등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록 절차상 복잡한 면이 많아 통상 현지 파트너를 통해 등록 및 유통 시키는 것이 유리
- 현지 공동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시장점유율 상승효과
 - 기술이전, 원료·설비 공급, 정부 입찰 참가(자국 생산 품목 유리) 등으로 시장점유율 제고

다. 금융 산업

□ 몽골 금융산업은 전체 금융자산의 95% 이상을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 중심 구조

- 은행 부문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25.3월 기준 은행 부문 총 자산은 전년동기비 27% 증가했고 경제회복과 함께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4년 기준 금융산업 규모는 12억 5,000천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으며, 이는 몽골 GDP 중 5.2%의 비중을 차지
- 몽골 은행 및 금융기관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투자 확대
 - 모바일 banking, 온라인 banking, 디지털 결제 앱 등이 일반화되어 핀테크 서비스 사용자 중 상당수가 비용 지불, 세금 신고 등을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
 - AI 챗봇 등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기술을 도입했으며, 칸뱅크(Khan Bank)가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해서 고객과 직원 간 직소통을 감소시킨 사례가 존재
- 몽골 은행 산업은 단기간에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거시 경제적 리스크 요인을 제외할 경우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 은행 경쟁력 지수는 '19년에 37개국 중 28위였으나 '24년에는 9위에 올라 18계단 상승. 또한 지역 5개국 중 1위, 자원 의존도가 높은 21개국 중 6위, 중상위 소득 14개국 중 3위를 차지하는 등 이전 대비 은행 부문 경쟁력이 크게 개선

□ 몽골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

-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전)이 양국 EPA 협상관련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기관들의 몽골 진출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
 - 양국 EPA 2차 협상에서 경제개발부 장관 후렐바토르(Khurelbaatar)는 인터뷰에서 금융부문에서 양국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은행이 몽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언급
 - 금융 분야의 협력은 양국 무역에서의 대금 송금 및 결제를 원활하게 하여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FTA 활용 등 협력 유망 분야

- 한·몽 EPA 체결 시 한국산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 현지 서비스 시장 분야 진출 확대 등 긍정적 결과 예상
 - 양국 정부는 '23년 9월 EPA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24년 11월까지 5차 협상을 실시했으며, 몽골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 EPA 체결을 추진 중으로,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몽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투자, 금융, 서비스 분야 협력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실시
 - 몽골은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력(투자법 개선, 투자청 신설 등)을 추진 중인 바, 향후 EPA 협상 타결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G2G) 국가 간 협력 유망분야

- (한·몽 EPA 체결) '16년부터 EPA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EPA가 체결되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몽골은 광업 의존적 산업구조를 벗어나 광물 및 축산물을 가공하는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몽골 정부는 한국의 기술 전수 희망
- (인프라 개발) 몽골은 제조업 육성, 수입 대체품 생산,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개발 목표를 위해 전략 메가 프로젝트들을 실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기본 시설 건설, 전략 에너지 확충,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지하철) 확대 정책 추진
- (공급망) '희소금속 협력 센터' 추진에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한 바, 희토류 포함 광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리스트 관리 가능

* 참고로 몽골은 80여 종의 광물 보유국이며 구리(세계 2위), 석탄(4위), 형석(3위), 희토류(세계 매장량의 16%),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등이 풍부

나. 프로젝트

□ 몽골 정부 14개 메가 프로젝트 발표

- '28년 기준 경제성장률 6%,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14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 수출 경로 확대 2개, 에너지 의존 탈피 4개, 수출 확대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 6개, 사회 인프라 개선 2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25년에 프로젝트 5개가 시작됐으며, '26년에는 5개가 추진될 예정

경제 영향력이 큰 14개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

No.	프로젝트	투자규모(백만 달러)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	석유제품 생산 공장	485.6	382.4	293.5	204.6
2	Erdeneburen 수력발전소	79.9	38	101	25
3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원	111	296	222	111
4	석탄-화학 단지	30	70	-	-
	코코스-화학 단지	-	-	209	209
5	Tavantolgoi 450MBT 난방 발전소	177.3	245	151.8	19
6	Egiin Gol 수력 발전소	1.4	0.9	-	-
7	제철소	22.1	226	226	226
8	Kherlen Toono 프로젝트의 상수도 송수관	-	95	95	190
9	Orkhon Angi 프로젝트의 상수도 송수관	-	65	65	33
10	구리 가공 공장	264.2	404.4	75.6	17.9
11	금 정제 공장	-	45.6	-	-
12	Gashuunsukhait-Gants Mod 철도	129	129	-	-
	Khangji-Mandal 철도	-	4	4	-
	Shiveekhuren-Sekhee 철도	-	1	-	-
	Choibalsan-Baruun Urt-Bichigt 방향 철도	-	658	658	877
13	몽골과 프랑스 공동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116	108.2	140	-
14	국가 인공위성	-	33	82	214
	전체	1,415.3	2,831.4	2,322.6	1,987.1

자료: 몽골 경제개발부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31
2. 진출전략	33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024-2028 정부 활동계획' 본격 시행으로 대형 인프라·광산 개발·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중
- '25년부터 공공부문 임금·연금 물가연동 제도화 등 사회정책 강화로 기업 원가구조에 직접적 영향 가능성이 있음.
- '27년부터 좌측 핸들 차량 수입 의무화, '24~'26년 도로·자동차세 인상 등 교통·환경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PPP 제도 정착으로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회 확대 중



경제(Economic)

- '25년 경제성장률은 6% 내외이나, '26년에는 대외수요 둔화와 석탄가격 하락으로 5%대 중반으로 둔화 전망
- 한류 변동성 및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수출입 구조 리스크 존재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증가세이나, 광업 편중 구조로 산업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 최저임금 20% 인상('25년 4월), 공공부문 임금·연금 인상으로 노무비 상승 압력이 기업 비용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음



사회문화(Social)

-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젊은 층 비중이 높아 소비 잠재력이 크고, 디지털 친화적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
- 한류 확산과 한국어 학습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 및 서비스에 우호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환경·윤리적 소비 의식 확산으로 친환경·저탄소 제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도시화·신도시 건설로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기반 생활 패턴이 확대되고 있음



기술(Technological)

- 정부의 E-Mongolia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로 ICT 활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 위성통신·스마트 인프라·지하철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디지털·스마트 기술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전기차·CNG 기술 등 친환경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추세
- AI·빅데이터·자동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물류·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 내수 성장 잠재력이 큼.
- 한국어 구사 가능 인력이 많고 한류 친화적 분위기
- 구리·석탄·금 등 자원 풍부, 신흥 자원개발국으로 부상
- 정부의 전략 광산·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

약점(Weakness)



- 인구 350만 명 규모의 작은 시장과 낮은 구매력
- 물류·통신 등 인프라 취약, 유통망 한계
- 현지 제도 불확실성과 시장 정보 부족
- 외국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제 충격에 취약

기회(Opportunity)



- 제3의 이웃 정책에 따른 한국과의 협력 확대
-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 기대
- 제조·가공산업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추진
- 신도시 개발·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위협(Threat)



- 광산업 의존 심화로 대외 수요·가격 변동에 취약
-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환경 리스크 요인
- 광활한 영토·혹한 기후로 물류비용 부담 증가
- 환율 변동 및 금융시장 불안정이 투자 리스크를 가중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국의 ICT·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현지 저비용 원자재 및 젊은 인력을 활용한 융합형 서비스 진출 추진
- 한류·디지털 트렌드를 결합한 소비재·서비스 집중 공략



디지털세대 소비를
집중 공략

ST 전략(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 정부의 디지털화 및 신도시·지하철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스마트 인프라·교육·비대면 솔루션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인프라 시장 차별화 공략



디지털을 활용한
유통시장 공략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몽골의 FTA 추진 및 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를 활용해 전자상거래·제조·가공·ICT 서비스 분야 점진적 확장
- 현지 생산기반 확보 후 온라인 직판 및 주변국(중앙 아시아) 진출



현지 생산 후
온라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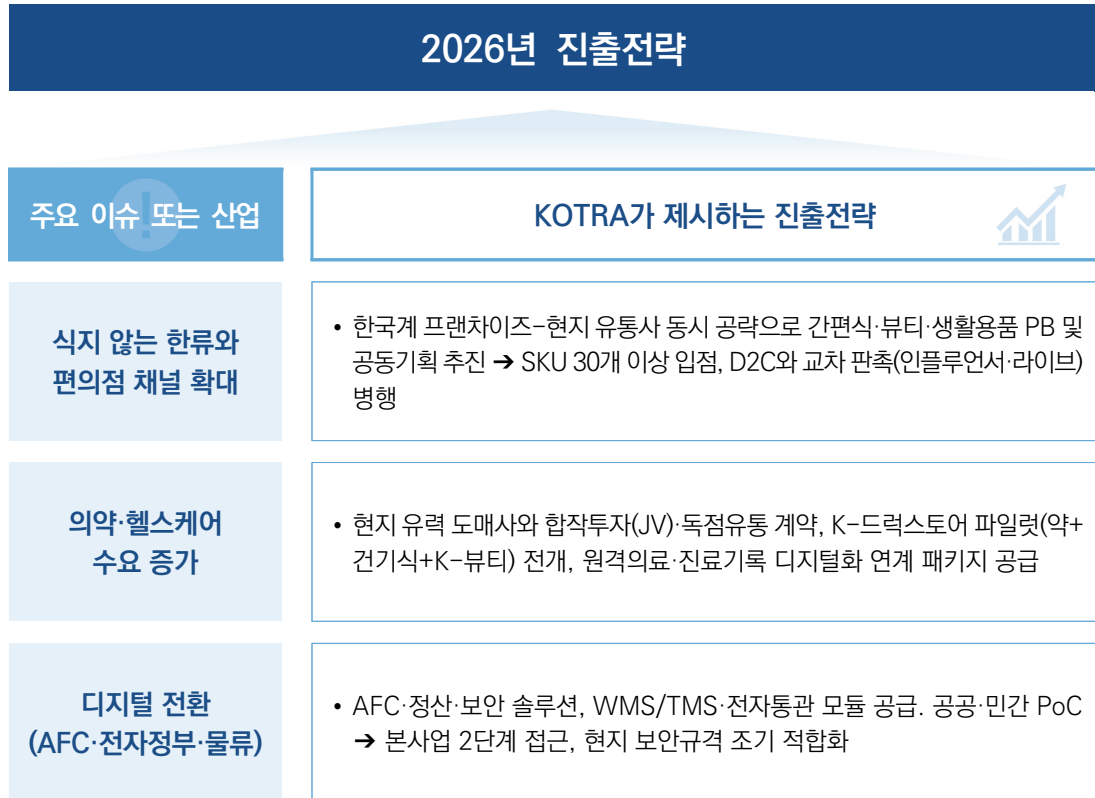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정치·경제 변동성과 물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JV) 및 디지털 물류망 선제적 구축
- 디지털 물류·유통시스템 선점 및 리스크 분산형 운영



디지털을 활용한
물류·유통사업 진출

2. 진출전략



전략 ①

한류·멀티채널 기반 소비재 선택과 집중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등 최근 상황)

- * 한류 확산으로 한국계 프랜차이즈 급성장 : 이마트 5개점, CU 400+, GS25 300+ 운영에 더해 카페·치킨·분식 등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도 빠르게 확대 → 편의점·카페·외식 전 채널에서 한국산 구매 비중 상승
- * '25년 최저임금 20% 인상(66만 → 79만 투그릭), 공공임금·연금 물가연동으로 저가·중저가 제품의 체감 구매여력 상승
- * 젊은 인구 구조(35세 미만 62%)*와 도시화·모바일 소비 확대로 간편식·K-뷰티·생활용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 * '24년 총수입 116억 2,500만 달러(+25.7%), 한국은 5위 수입국으로 한국산 소비재의 접근성이 높아짐

• (우리기업의 진출 시 강점 등 진출 Point)

- * 한국 브랜드 파워와 빠른 트렌드 전파력(K-콘텐츠 연계), 안정적 공급·품질관리·다품종 소량 대응 역량
- *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업 경험(PB/공동개발·맞춤 포장·라벨링) 축적, 소비재 인증·통관 패키지 표준화
- * EPA 협상 진전, 전자상거래 친화 규제 환경(화장품 위생증 확인 중심)으로 시장 접근 비용 상대적 우위
- * D2C/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용 경험,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판촉 가능

□ 현지 동향

• 프랜차이즈 다변화와 대기업 주도 소싱

- 정부 통계는 없으나, 현지 조사 기준 한국계 편의점 확산과 함께 카페·치킨·분식·베이커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 동시 성장
- CU(Premium Group), GS25(Shunkhlai Group), 이마트(Altai Holding) 등 복합유통 대기업이 마스터 가맹 및 수입·입점 의사결정 주도

□ 유망품목

• K-프랜차이즈 확산과 젊은 소비층 증가로 소용량·즉시소비 제품 수요 급증

- 간편식(HMR), 즉석조리식품, 한국식 분식류
- 육류 중심 식단 속 건강식·샐러드 등 균형 잡힌 식단 수요 확대

□ 진출전략

• 현지 대기업(마스터 가맹·유통사) 협업 통한 안정적 시장 진출 필요

- PB상품·공동개발·맞춤형 포장·라벨링을 통한 현지화 대응 필요
- 최저임금 상승·소득 증가 고려, 가성비+프리미엄 결합 전략으로 경쟁력 확보

전략 ②

의료 및 헬스케어 수요 증가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수입 의존적 의료 시장
 - 의약품 약 95%, 의료기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검진·치료용 장비 및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
 - 건강검진 제도 확대('22년 시작)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이 검진에 참여, 진단·치료 서비스 수요가 동반 확대
 - 몽골 정부, 건강검진 및 병원 현대화 사업에 재정 투자
-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수요 증가
 -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까지 직항은 약 3시간 30분으로, 중국보다는 다소 멀지만 러시아보다는 가까워 의료 접근성이 양호
 - K-뷰티·한류 확산으로 의료+미용 목적 복합 관광 수요 존재

□ 현지 동향

- 몽골 정부, '22년부터 국민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약 100만 명 이상 검진 참여
 - 건강검진 예산 확대 및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 영상진단기기·검진장비 수요 확대
 - 몽골 의약품 전체 수입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4년 기준 안정적으로 2위 수입국 지위 유지
- 의약품 등록 건수는 지속 확대되어 '24년 현재 4,780여 종 이상이 등록, 이 중 한국산 등록 의약품 비중은 13.0~15.1% 수준으로 상승

□ 유망품목

- 몽골 의약품 시장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안정적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해당 품목군 중심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영상 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 환자 모니터링 장비
 - 내과·피부과·산부인과 등 전문 클리닉 기반 의료기기

□ 진출전략

- 현지 유력 유통사와 합작 및 합작투자(JV) 체결을 통한 의료기기/의약품 안정 공급망 확보
 - 인허가 및 등록 절차(평균 2개월 이상) → 현지 전문 유통업체 네트워크 활용 필수
 - K-드럭스토어·K-뷰티 융합형 모델 진출 → 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제 완화 예상 → 편의점·마트 내 유통 가능성 확대

전략 ③

스마트 교통·물류 및 전자정부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몽골 정부는 '30년까지 디지털 국가 전략을 추진하며 전자정부·스마트 교통·물류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
 - 울란바토르 대중교통 혼잡, 택시 제도 개선, 신규 지하철 건설 등과 맞물려 자동요금징수(AFC)·정산 시스템 수요 급증
- 물류·유통 부문에서도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WMS/TMS·전자통관 솔루션 수요 확대
 - 현지 IT기업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해외 기업 솔루션 의존도 높음

□ 현지 동향

- 정부의 전자공공서비스 플랫폼 'e-Mongolia'는 '20년 출범 이후 지속 확장중이며, '24년 기준 86개 기관에서 1,200여 개 서비스 제공, 사용자도 200만 명 수준으로 상승
 - 도심 인프라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광역 대중교통, 행정 서비스(전자민원·전자신분증·사업등록), 세무·법적 절차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 특히 원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프로그램도 정부 지원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으로 확대 중
 - 교육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추진 : UNESCO-ICDL Asia와 몽골 교육부가 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 원격 학습 플랫폼 및 공개 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활용 확산

□ 유망품목

- 몽골의 교통·물류 현대화 및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한국 ICT기업이 강점을 가진 솔루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배달앱 시장은 초기 단계이나 울란바토르 교통 혼잡, 프랜차이즈 확산, 모바일 결제 성장세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큼
 - 전자정부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 물류 관리 시스템(WMS, TMS), 전자통관 모듈

□ 진출전략

- 몽골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표준 및 현지화 요건에 신속히 대응
 - 공공·민간 입찰 동시 대응 및 컨소시엄 전략
 - ODA·IFI 프로젝트 및 민간 유통·물류기업 협력 동시 추진



화장품

- 선정사유**
- 한랭·건조 기후와 강한 일사량 → 보습·장벽케어·선풍제어 상시 수요
 - 몽골 소비자와 한국인의 피부·취향 유사, 한류 확산으로 K-Beauty 신뢰·선호 높음
- 경제동향**
- 수입 중심 시장, 한국 브랜드 1위권 유지(일본·폴란드·프랑스 추격)
 - 프리미엄·싱글라이·알타이 등 유통 대기업이 소싱 주도, PB·전용상품 요구 증가
 - 현지 제조는 제한적이나 동유럽 OEM 등 가격경쟁 심화
- 진출방안**
- 프랜차이즈·수입사와 소용량·행사팩·현지 맞춤형 PB상품 공동기획
 - 테이스팅 부스 + 시즈널 에디션 운영, 인플루언서·숏폼 연계 O2O 판촉(쿠폰·픽업·QR)
 - 환율·CPI 연동 조세·불가항력 조항 반영 및 바이어 다변화로 리스크 최소화

자동차

- 선정사유**
- '27년부터 좌측 핸들만 신규 수입 허용 예정 → 기존 우측 핸들 중심 수요가 좌측 핸들 승용·SUV로 빠르게 전환
 - 울란바토르 대중교통 혼잡 및 택시 제도 정비로 승용·택시·관용차 교체 수요 확대
- 경제동향**
- 일본 중고차 강제 지속, 좌측 핸들 전환으로 한·중 LHD 신차 경쟁 본격화
 - 달러·정비망 한정 → 서비스·부품 가용성이 구매 결정 좌우
 - 플릿·조달 시장은 대기업·공공기관 관계·금융제안이 성패 결정
- 진출방안**
- LHD 집중 포트폴리오 : 1.6~2.0L 가솔린·하이브리드 세단·컴팩트·미드 SUV 위주, 혹한 대응 윈터 패키지(열선·배터리 업그레이드·부동액·히터) 기본화
 - 서비스·부품 내재화 : 정비센터+부품창고 구축, 소모품(오일·필터·브레이크·타이어) 정기공급 계약

소스 및 스낵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계 프랜차이즈(편의점·카페·외식) 확대로 K-푸드 맛 구현용 소스와 간편 스낵 수요 동반 증가• 제조기반이 약해 상온 가공식품을 수입에 의존, 보관·유통이 쉬운 파우치 및 소포장에 적합 |
| 경제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스·과자류는 한국·러시아·중국·터키 등이 경쟁, 한국산은 프리미엄·트렌드형으로 인지도 높음• 현지 생산은 제한적이나 일부 리패킹·소분 시도가 늘어 납기·가격 측면 경쟁 발생• 현지 대형 유통사(프리미엄·송홀라이·알타이)가 PB·전용상품을 적극 요구, 가격과 구성 경쟁 심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랜차이즈·수입사와 소용량·시즌·저염형 PB상품 공동기획• 테이스팅·쿠킹쇼·인플루언서 연계 O2O 판촉 상시화• 몽골어 라벨·원산지·유통기한 표준화로 통관 리스크 최소화 |



헬스 관광

- 선정사유**
- 국가 건강검진 제도 정착, 병상·전문의 부족 → 해외 치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존재
 -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한·몽 항공편 정상화로 접근성 개선
 - 환자·보호자 모두 원스톱 패키지(비자·항공·숙소·통역) 선호, 귀국 후 원격 사후관리 수요 증가
- 경제동향**
- 한국·일본·중국 이 주요 목적지, 브로커 중심 판매가 여전히 가격·정보 비대칭 존재
 - 인기 과목은 검진·피부·안과·산부인과 등으로 브랜드 병원 쏠림 현상
- 진출방안**
- 환자 여정형 패키지 : 온라인 문진 → 검진·치료 → 귀국 후 앱 기반 사후관리·EMR 공유
 - 현지 채널 : 보험사·대기업 복지, 대사관 행정·검진센터와 제휴, 리퍼럴 수수료 투명화

물류

- 선정사유**
- 수입 의존·편의점/카페 네트워크 확대 → 픽업·반품(PUDO) 거점 필요
 - 식품·뷰티의 소포장·시즌별 판매가 늘어 창고 자동화·콜드체인 모니터링 수요 증가
- 경제동향**
- 국영·로컬 운송사 중심에 3PL 전문성이 부족, 흑한기 서비스 변동폭 큼
 - 크로스보더는 중국 경유 비중이 커 통관·리드타임 변동 리스크 상존
- 진출방안**
- 편의점 거점형 PUDO : 택배·락커·반품 접수 모델을 CU/GS25·물과 구축
 - 동계 운영 : 보온패키지·동절기 수송 매뉴얼, 온도 이탈 알림·클레임 규정 명시

콘텐츠·문화

- 선정사유**
- 젊은 층 중심 K-콘텐츠 소비와 광고주 관심 증대
 - 방송사·OTT가 현지 제작 포맷을 선호, 대형 음악·경연 포맷은 스폰서 유치가 용이
 - 영화·예능 제작 증가로 촬영·조명·음향·렌탈 및 후반(편집·색보정·VFX) 수요 확대
- 경제동향**
- 글로벌 포맷사(프렐렐·후지 등)와 경쟁, 저가 모방·IP 침해 리스크 존재
 - 장비는 중국·러시아발 저가 렌탈과 일부 개인 보유 장비가 혼재, 품질·A/S 격차 큼.
- 진출방안**
- 포맷 라이선스 패키지 : 포맷바이블·음원 권리 + 연출·무대 슈퍼바이저 + 캐스팅·심사·투표 시스템 제공
 - 수익 구조 : 방송권료 + 스폰서·PPL·라이브 투어 수익 쉐어, 시즌2 자동 갱신 옵션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몽골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전시회	2026 몽골 뷰티엑스포 연계 K-Beauty 쇼케이스	'26.3. / 미정
상담회	2026 몽골 프랜차이즈 로드쇼	미정

첨부 4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해당없음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UNCCD COP17	'26.8.17.~28.	

유망 전시회 캘린더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장소
Beauty Expo 2026 International Beauty & Health Expo	2월 27일~3월 1일	Buyant Ukhaa
Build Mongolia 2026	4월 9일~4월 11일	Buyant Ukhaa
Barilga Expo 2026 Construction and Housing Fair	4월	Misheel Expo
Mongolia Mining 2026 International Mining&oil Expo	4월 15~17일	Buyant Ukhaa
Mongolia Health Technology Expo 2026	10월	Misheel Expo
(Mongolian Mining Week) MINEPRO Expo 2026	9월	Taij Khaikhan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NANDINTSATSRAL AMARSANAA	Senior Specialist	울란바토르	(976)7711-0140	nandin@kotra.or.kr
2	UNDRAM KHATANBAATAR	Specialist	울란바토르	(976)7711-0140	undram@kotra.or.kr

2026 몽골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19-5 (95320)